



◆한채영

# 이병헌과 한채영의 만남

## 영화 '인플루언스(The Influence)' 스틸 공개

이병헌, 한채영과 이재규 감독의 만남, 그리고 명품 배우 총출동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스터리 디지털 블록버스터 '인플루언스 The Influence'의 캐릭터 컷이 최초 공개됐다.

### 미스터리 가이드(leader) 'W'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병헌과 한채영, 스타 PD 이재규 감독과의 만남. 명품 배우들의 출동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인플루언스 The Influence'의 캐릭터들이 베일을 벗었다.

이 작품에서 이병헌은 1907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의 시공간을 날아다니며 풀이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을 미스터리 공간 DJC로 안내하는 인물 'W'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최초 공개된 스틸 속 이병헌은 전작과는 상반된 짧은 헤어 스타일, 한치의 빈틈없는 블랙 정장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총 3가지 에피소드에서 각자 다른 시대의 상황, 인물을 접하게 되는 W는 다양한 감정 변화와 의상으로 드라마틱한 캐릭터를 표현해야 한다.

인물로 총 60분 러닝 타임 동안 다양

한 캐릭터 변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병헌의 탁월한 연기력은 '인플루언스 The Influence'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거대한 수조 속 슬픈 여인 '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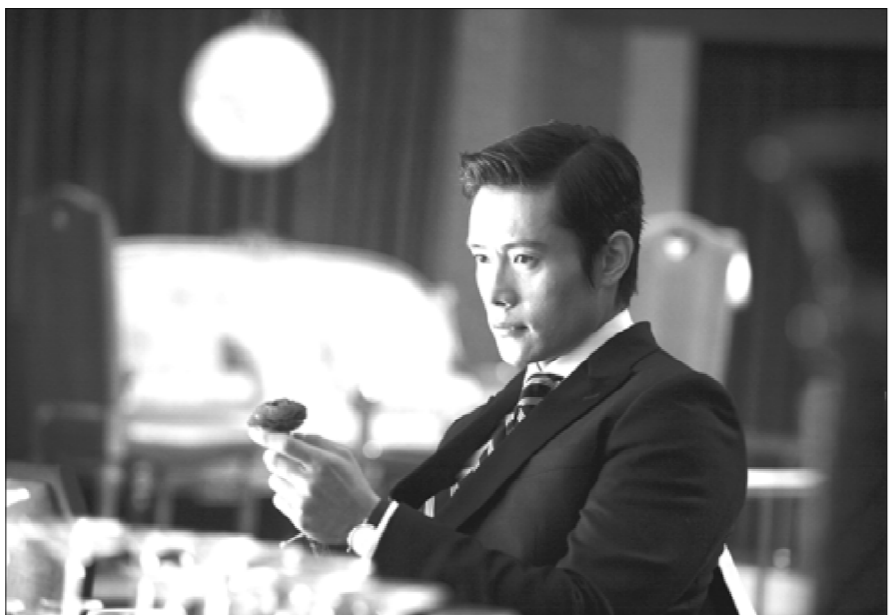
이병헌과 첫 연기 호흡을 맞추는 한채영은 미스터리한 캐릭터 'J'로 새로운 변신에 도전한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 속 한채영은 화려한 CF 속에서 급방 튀어 나온 것 같이 아름답지만 슬픈 스토리가 예감되는 모습이라 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고조시킨다. 미스터리한 공간 DJC를 통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운명을 가진 J는 사랑하는 W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거대한 수조 속에 갇히게 되는 인물로, 100년의 시간 동안 유리벽 사이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만 봐야 하는 슬픈 여인이다.

한채영은 서양식 드레스뿐만 아니라 바디 라인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쉬폰 소재의 레드 원피스까지 선보이며 고풍적인 여성으로 완벽 변신할 예정이다.

부드러운 몸짓 연기와 표정만으로 모든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캐릭터 J를 통해 배우 한채영의 배우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1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며 슬픈 사랑을 나누게 될 이병헌과 한채영의 앙상블이 기대되는 '인플루언스 The Influence'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약속,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선택의 기로에 놓인 주인공들이 펼치는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로 3월 초 온라인을 통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병헌

### 동영상



## '함께 하는 우리말 여행'

### '우리말 다듬기'

#### ▷ 어떻게 바꿀까요? ('다듬을 말 투표')

아이젠(eisen)

투표기간 : 1월 19일 ~ 2월 1일

투표 중인 후보어

① 눈길덧신(눈길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용구)

② 등산설피(등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용구)

③ 쇠설피(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쇠로 만든 용구)

④ 톱니덧신(미끄럼 방지를 위해 신발에 덧끼우는 톱니 모양의 용구)

투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 후보어를 제안해 주세요!

다듬을 말 : '워킹맘(working mom)'

제안기간 : 1월 19일 ~ 2월 1일

보기 : 30대 '워킹맘' 김모 씨는 주로 퇴근 후 늦은 밤에 장을 보기 때문에 재래시장보다 영업시간이 긴 대형 마

트를 자주 이용한다.

의미/용례 : '워킹맘(working mom)'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을 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워킹맘(working mom)'을 대신할 우리말 제안을 받고 있다. 제안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net>)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서 진행 중이다.

### 일상말총 우리말

#### ▷ '주점스럽다'

「형」① 음식 따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있다. 위그 아주머니는 주점스럽게 잔칫집만 가면 무얼 싸 가지고 와야 직성이 풀린다. ② 모습이 품시 불품이 없거나 어수선한 데가 있다. ③ 평산은 손짓 몸짓 해 가면서 지껄이기를 멈추지 않았다. 본시 주점스러워 그

렇기도 했으나 또 마음을 놓아 그럴기도 했으나 차츰 그는 그대로 울분이 치솟았던 것이다. <박경리, 토지>

#### ▷ '홀앗이'

「명」살림살이를 혼자서 맡아 꾸러 나가는 처지. 또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① 홀앗이가 앉아 누웠으니 마음이라도 끊어 주고 약이라도 달여 줄 사람이 있어야지. <현진건, 무명탑>

#### ▷ '청처집하다'

「형」① 아래쪽으로 좀 처진 듯하다. ② 여삼이 기둥을 부둥켜안고 힘을 쓰자 과연 기둥은 못대기리가 빠져나갔다. <유현중, 들불> ③ 동작이나 상태가 바짝 조이는 맛이 없이 조금 느슨하다. 위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런 청처집한 수작에 넘어갈 것 같으나. 자료제공 국립국어원, 정리 양원식 기자

## 현빈-송혜교, 가장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커플 선정

지난해 현빈-송혜교, 장동건-고소영 등 톱스타들의 열애 소식으로 뜨거운 한해를 보낸 데 이어, 2010년 벽두부터 김혜수와 유해진의 열애소식이 연예계를 강타하는 등 최근 당당하게 열애를 발표하는 공인 커플들의 모습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다.

최근 SES의 멤버였던 슈는 농구스타 임효성과 열애 끝에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최초로 4월의 예비신부가 되었다.

연예계 공식 커플들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커플은 누가 있을까? 음악포털 벅스([www.bugs.co.kr](http://www.bugs.co.kr))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커플은?'이란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40.25%

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현빈-송혜교' 커플이 1위를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현빈-송혜교 커플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연예계 공식 선남선녀 커플이다.

최근 송혜교-현빈 커플은 5월까지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빈번했다. 두 사람이 각각 해외 영화 촬영으로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송혜교는 다음달 초부터 중국에서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의 영화 '일대종사' 촬영에 합류하며 '일대종사'는 리샤오롱(이소룡)의 스승 역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량차오웨이(양조위)·장첸·장쯔이 등 중화권 톱스타가 총출동하는 기대작이다. 송혜교는 작년 말 출연을 확정 짓고 중국에서 무술 훈

련을 받고 있다. 2월 크랭크인 해 3개월간 촬영할 예정이다. 송혜교는 CF 촬영을 제외하고 5월까지 중국에서 머문다.

연인 현빈도 이달 중순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만추' (김태용 감독) 촬영을 시작한다. 1966년 개봉한 이만희 감독 영화의 리메이크작이다. 1975년과 1981년 김기영 감독과 김수용 감독에 의해 두 차례 리메이크됐을 만큼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특별 휴가를 받고 감독에서 나온 여자와 누군가에게 쫓기는 젊은 남자의 우연한 만남과 사랑이 기동 줄거리다. '색, 계'의 헤로인 탕웨이여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현빈 오피는 잘 생겼고, 송혜교 언니는 예쁘니까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현빈-송혜교는 정말 선남선녀 커플'이라며,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출판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한 결정판

##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 제2판 최신판 출간 • 조만형 · 한승훈 공저 • 청목출판사 간

본 도서의 특징

1. 수험에 필요한 필수내용의 핵심을 요약하였다.
2. 최신 법령 (2009년 3월 이전)을 빠짐없이 찾아하여 반영하였다.
3. 열역별로 1장씩씩 적선택 하여 30장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4. 각차별 학인학습을 위한 중요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다.
5. 국내 및 해외는 사회복지법제 전공자 (법학박사)가 저술하였다.
6. 수험에 필요한 요약용 필드로 부록화 하였다.
7.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8. 한국원격평생교육원 (Study.co.kr) 동영상 강의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항상 좋은 책으로 보답하는 - 청목출판사 TEL: 02) 849 - 6157